

# 잠잠한 FA시장...관심 모아지는 내야수 3인방 거취

KIA 안치홍 · 김선빈 · LG 오지환 잔류 의지 강해  
현재 움직임은 정중동...기량 검증돼 '즉시전력감'

프로야구 FA시장이 여전히 잠잠한 가운데 파괴력을 갖고 있는 내야수 FA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현재 FA 권리를 신청한 19명 중 단 2명(이지영·유한준)만이 계약에 성공했다. 외부이적은 한 명도 없다. 변수로 꼽힌 2차 드래프트(20일)까지 끝났지만 몇 건의 트레이드만 성사됐을 뿐 이렇다 할 계약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탐색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FA에 대한 구단과 선수 측 간극이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이다.

이중 내야수 3명(LG 오지환·KIA 안치홍·KIA 김선빈)은 잠재된 FA시장에서 그나마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거취가 유동적이기도 하다. 세 선수 모두 원소속팀(LG·KIA)과 스스로 모두 잔류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예측불허하다. 일부 팀들에게는 전력보강 카드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현재까지 외부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다. 내야수가 필요한 롯데 자이언츠가 외국인 유격수 디슨 마차도를 영입했고 다른 몇몇 팀들도 복귀자원 및 기존 유

망주들에게 내야를 맡긴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내야가 취약한 SK 역시 외부 FA 영입에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에이스 김광현의 메이저 리그 도전이 확정됨에 따라 전력 약화가 불가피하기에 약점인 내야 보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지만 구단 내부적으로는 현재 FA 대상자들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는 분위기다.

즉, 오지환의 LG, 안치홍·김선빈의 KIA만큼 절실한 팀은 없다는 분석이다. 자연히 이들을 향한 영입경쟁은 없고 원소속팀 입

장에서도 끌려다니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구단과 선수 간 인식차가 벌어지는 형국이라 협상은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세 선수 모두 기량면에서 검증이 됐고 나이도 많지 않은 편이라 단기간에 전력상승을 노리는 팀들에게는 효과적인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다른 FA 대상자들에 비해 꾸준히 야구계 안팎에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다.

2차 드래프트 등이 마무리됐기에 본격적으로 내년 전력을 구축할 구단들이 노선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활발해진 트레이드 논의마저 중단된다면 이들 내야수 FA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당장은 잔잔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FA시장. 전체적으로 침



KIA 안치홍-KIA 김선빈-LG 오지환 (왼쪽부터)

체가 깊은 가운데 약간의 관심이 야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선빈 등 내야수 FA들의 거취에

## 'LG 유광 점퍼' 정근우 "2루수 복귀해 명예회복 할 것"

프로통산 15시즌 타율 0.303 120홈런 708타점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게 된 정근우(37)가 주포지션인 2루수에 복귀해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근우는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마음 한구석에 2루수를 아쉽게 물러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고 LG 입단 소감을 밝혔다.

2005년 SK 와이번스에서 데뷔, 2014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한화로 이적했던 정근우는 지난 20일 KBO 2차 드래프트에서 LG에 지명됐다.

정근우는 프로통산 15시즌을 뛰며 타율 0.303 120홈런 708타점을 기록했고 국가대표 2루수로 맹활약했다. 하지만 서른 중반을 넘기면서 노쇠 기미가 보였고 지난 시

즌에는 주포지션인 2루수를 내주고 1루수와 외야수로 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2루수로 선발 출전한 것은 2018년 5월31일 대전 NC전으로 2019시즌에는 한 경기도 주포 지션에서 선발로 나서지 못했다.

정근우는 "다시 2루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 감사해 눈물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다"며 "약간 의기소침해지기도 했는데 다시 솟아오르는 것이 있었다. 열정을 조금 더 태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웃으면서 "감독님께서 사투리로 '세컨드 되지?' 라고 하셨다"면서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달라는 것으로 들었다. 좋은 후배들이 많기에 서로가 안 좋을 때 메워주며 같이 잘해보겠다"고 밝혔다.

정근우는 명예회복을 위해 일찌감치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는 "뭉치, 민철성, 순발력 등을 키우기 위해 평소보다 스케줄을 앞 당겨 몸을 만들고 있다"며 "땀이 쉬면 안 되고 뭉치 하라고 하는 것 같다. 명예회복을 위해 한 번 해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 이승우 입지에 변화 생기나...신트 트라위던, 감독 경질

벨기에리그 진출 이후 출전 기회를 전혀 잡지 못하던 이승우에게 다른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까. 팀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 감독이 경질됐다.

신트 트라위던은 2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마르크 브라이스 감독의 미래에 성공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결별을 선언했다.

26일 현재 신트 트라위던은 5승 3무7패로 11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라운드 스포르팅 사를루아전에서 1-3으로 패하며 2연패에 빠지자 구단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신트 트라위던 측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사를루아전에서 패한 이후 브라이스 감독과 스테프들과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브라이스 감독과 함께 했던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와 함께 이승우의 입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관심사다.

2019-20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이탈리아 세리에A 헬라스 베로나를 떠나 벨기에 주빌러그 신트 트라위던으로 이적한 이승우는 지금까지도 데뷔전조차 치르지 못했다.

출전은 고사하고 훈련이 불성실하다는 마찰음까지도 들렸고 지난 라운드에는 브라이스 감독이 "이승우가 다음경기에 출전한다"는 예고까지 했으나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 김세영, 세계랭킹 5계단 오른 6위

고진영 18주 연속 1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한 김세영(26·미래에셋)이 세계랭킹 6위에 올랐다.

김세영은 26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6.01점을 기록, 지난주 11위에서 5계단 뛰어오른 6위에 자리했다.

김세영은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끝난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시즌 3승째이자 통산 10승째를 달성했다.

올해의 선수상, 베어트로피, 상금왕 등을 휩쓴 고진영(24·하이트진)은 변함없이 세계랭킹 1위를 유지했다. 18주 연속 1위다.

박성현(26·솔레어)이 고진영의 뒤를 이어 2위를 지켰고 넬리 코다(미국)는 3위를 유지했다.

다니엘 강(미국)이 4계단 뛰어오른 4위에 자리한 가운데 지난주 4위였던 히타오카 나사(일본)는 5



위로 밀렸다.

이민지(호주)와 이정은(23·대방건설)은 나란히 3계단씩 밀려 각각 8위, 9위에 자리했다.

박안비(31·KB금융그룹)와 김효주(24·롯데)는 1계단씩 하락해 13위, 14위에 랭크됐다.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임대성원림

연돈숲정자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성원림→연돈숲정자→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